

재귀사의 논리 형태

서 수 현

1. 머릿말

종래의 결속이론은 영어재귀사 *himself*를 중심으로 지배법주를 설정하고 각 언어마다 이 지배법주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재귀사 연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귀사와 관련하여 주어지향성, 공법주 원리와의 관계, 장벽효과 (blocking effect)등 영어의 여러 언어들의 재귀사의 성격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결속이론은 본래의 조합성(modularity)을 잊고 제한된 범위의 자료에 한해 유효한 주장들을 각기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논리구조에서의 재귀사이동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관성있는 분석이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영어, 한국어, 아이슬란드어의 재귀사의 결속현상을 총괄하여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2. 주어지향성(subject-orientation)

Chomsky (1986a)는 다음과 같은 clitic의 이동에 착안하여 영어 재귀사를 LF에서 INFL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a. Les garçons_i ses_i regardent t_i.
b. John himself_i—INFL love t_i.

(1a)의 재귀사이동은 SS에서 일어난 것이고 (1b)의 이동은 LF에서 일어난다. (1b)의 재귀사는 주어에 의해 결속되어 결속이론 (A)를 만족하고, 재귀사흔적은 재귀사에 의해 선행사지배되어 공법주원리를 만족한다. Chomsky(1986a)가 LF에서의 재귀사이동을 제안하여 얻는 잇점은 다음 예문의 비문법성을 설명하는데 있다.

- (2) a. *John loves himself's picture.
a'. John_i himself_i—INFL love [NP t'_i's picture].

b. *John thinks that himself is honest.
b'. John_i himself_i —INFL think [crt'_i [t_i is honest]].

(2a')에서 NP의 주어자리의 재귀사 흔적은 N에 의해 어휘지배되지 못하고, Lasnik-Saito (1984)에 의하면 NP는 장벽이므로 선행사지배로 될 수 없어 (2a)는 공법주원리를 어긴다. 그러나 (2b')에서 *that*를 삭제하고 흔적을 삽입하는 것이 LF에서의 Affect- α 에 의해 가능하므로 종속절 주어자리의 흔적은 선행사지배되어 공법주원리를 만족한다. 따라서 재귀사가 고유지배되는 자리에만 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Chomsky(1986a)의 분석은 (2b)에서 재귀사이동은 보문자의 자리에 들르지 않고 곧장 이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2a, b)를

다 설명할 수 있다.

한편, INFL로의 재귀사이동은 왜 주어가 목적어보다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설명해 준다. 재귀사가 INFL로 이동하면 그 자리를 성분통어 할 수 있는 NP는 주어 뿐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주어지향성이라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John_i told Bill_j about himself_{i,j}.

b. 철수_i는 영수_j에게 자기_{i,j*}*에 관해 얘기했다.

(3a)에서 영어의 재귀사는 주어, 목적어를 다 선행사로 취하나 (3b)의 한국어 재귀사는 주어만 선행사로 취한다. 그런데 Chomsky(1986a)는 모든 재귀사가 INFL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Pica(1987)은 주어지향성 유무를 재귀사이동으로부터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웠다.

(i) 모든 재귀사는 LF에서 이동한다.

(ii) XP-재귀사는 XP-이동만을, X⁰-재귀사는 X⁰-이동만을 한다.

(iii) LF에서 재귀사는 지배법주 (GC)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iv) 이동한 재귀사는 결속이론(A)를, 뒤에 남은 혼적은 선행사지배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가설 하에 영어 재귀사 *himself*는 XP-재귀사로서 NP, S를 지배법주로 하며,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X⁰-재귀사이며 지배법주는 문장 전체가 된다. 다음에 (3a, b)를 분석해 보자.

(4) a. John_i told Bill_j [PPhimself_i [PPabout t_j]].

a'. John_i [VPhimself_i [Vpfold Bill_j about t_j]].

b. 철수_i 자기_i-INFL [영수_j에게 t_j에 관해 얘기했다.]

(3a)는 XP-재귀사가 PP에 부착된 (4a)와 VP에 부착된 (4a')를 LF에서 가질 수 있어 선행사는 주어, 목적어가 다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자기는 X⁰-재귀사로 X⁰로만 이동하므로 INFL로 이동하여 (4b)에서 주어만 선행사로 취한다. 이와 같이 재귀사의 형태에 따라 α-이등의 유형을 제약함으로써 X⁰-재귀사의 주어지향성을 포착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XP-재귀사는 국부적 결속(local binding)을 하나 X⁰-재귀사는 비국부적 결속(nonlocal binding)을 한다.

(5) a . John_i thinks that Bill_j likes himself_{i,j}

a' . John_i thimks that Bill_j [himself_i [likes t_j]].

a''. *John_i [vphimself_i [vpthink [cp [ip Bill [vp t'_j [vp like t_j]]]]].

b . Jón_i segir að María_j elski(SUB) sig_{i,j}.

(John says that Mary loves(SUB) self).

b' . Jón_i segir að María_j sig_i-INFL elski t_j

b''. Jón_i sig_i-INFL segir [CP t_i'' [IP María_j t_i'-INFL elsk_i t_i].

(5a)에서 영어의 XP-재귀사는 종속절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하나 (5b)의 아이슬랜드어의 X⁰-재귀사는 주절 주어도 선행사로 취한다. (5a')는 X⁰-재귀사가 종속절 INFL로 이동했을 때 결속이론(A)와 선행사지배 조건이 만족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일 (5a'')처럼 주절 INFL까지 이동한다면 Chomsky(1986b)에 의해 CP는 장벽이므로 재귀사가 그 혼적을 선행사지배 할 수 없으므로 비문이고 (5a'')같은 LF형태는 제거된다. 이때 XP-재귀사가 CP에 들려 가지 못하는 이유는 논항인 XP에 부착되는 것을 금지하는 부착제약(Adjunction Constraint)때문이다.

(5b)에서 아이슬랜드어의 주절의 시제가 있는 INFL은 종속절의 가정법 INFL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아이슬랜드어의 INFL의 핵은 시제라고 보아야 한다. (5b)의 X⁰-재귀사는 종속절 INFL, 주절 INFL로 자유로이 이동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X⁰-재귀사는 지배법 주내의 모든 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Yang(1989)은 Pica(1987)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6) John_i told Bill_j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ould get a prize.

예문에서 지배법주는 문장 전체이므로 XP-재귀사가 종속절 바깥에서 XP-이동을 하여 선행사를 찾는다면 주어, 목적어를 다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6)에서 XP-재귀사는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한다. Yang(1989)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Pica(1987)의 이동제약을 버리고 모든 재귀사는 XP-이동과 X⁰-이동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논항부착금지조건을 써서 종속절 안에서는 주어지향성이 없는 XP-재귀사가 그 밖에서는 주어지향성을 갖는 것을 설명한다.

(7) John_i self_i-INFL told Bill_j [CPT_{i'} [IP [NPA picture of him t_i] would get a prize.]

(7)에서 *himself*는 CP 밖으로 못 나가지만 *self*는 X⁰-이동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종속절 밖에서의 주어지향성이 설명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Pica(1987)의 선행사지배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7)의 재귀사 혼적 t_i는 장벽 NP때문에 이 조건을 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좋다. 따라서 선행사지배조건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X⁰-재귀사이면서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하기도 한다.

- (8) a. Ég sendi Harald_i fót á sig_i
 (I sent Harold clothes for self)
 b. *Jón sagði Bill_i [CPað María elski(SUB) sig_i]
 (John told Bill that Mary loves(SUB) self)

(8a, b)는 아이슬랜드어의 X⁰-재귀사 *sig*가 소절내에서는 주어지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그 밖에서는 주어지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영어와 일치하나 X⁰-재귀사이므로 영어의 XP-재귀사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8a)로 X⁰-재귀사는 INFL로만 움직이므로 어떻게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Yang(1988)은 X⁰-재귀사도 XP이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XP-재귀사와 X⁰-재귀사 사

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여러 언어들을 살펴보면, XP-재귀사는 주어지향성이 없고 국부적 결속을 하며, X⁰-재귀사는 주어지향성이 있고 비국부적 결속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는데 Yang(1989)의 주장은 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또한 논항부착금지조건으로 최소절안과 밖의 주어지향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한다면 CP가 없을 때는 XP-이동으로도 비국부적 결속이 가능하게 된다.

- (9) a. *John_i believes [_{IP}Bill to love himself_i].
- b. *John_i considers [_{AP}Bill proud of himself_i]
- c. *John does not know [_{NP}Mary's hatred of himself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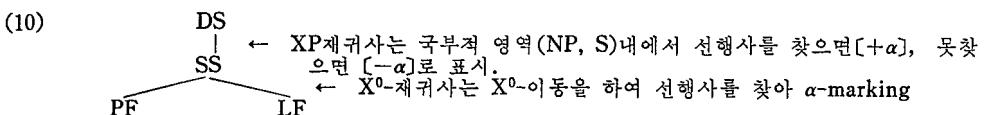
(9a, b, c)에서 IP, AP, NP는 모두 논항이므로 장벽이 아니다. 따라서 *himself*가 직접 주절의 VP에 부착되어도 선행사지배조건을 만족하고 결속이론(A)를 만족한다. 이런 분석은 (9a, b, c)의 비문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X⁰-재귀사의 주어지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X⁰-재귀사에 XP-이동을 허락해서는 안되며, 최소절을 경계로 주어지향성 유무가 달라지는 현상은 단순히 논항부착금지조건만으로 포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XP-재귀사는 본질적으로 국부적 결속을 하며 국부적 영역내에서 선행사를 못 찾은 경우에 한해 X⁰-이동이 필요함도 알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i) X⁰-재귀사가 최소절내에서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하는 것은 LF에서 X⁰-이동이 임의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이면 주어만 선행사로 취하고 안 움직이면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ii) 영어의 XP-재귀사가 최소영역내에서 선행사를 못 찾은 경우에 한해 X⁰-이동을 한다는 것은 결속이론을 SS와 LF에서 2번 적용하되 결속이론을 일종의 α -marking으로 가정하여, XP-재귀사는 원칙적으로 SS에서 α -marking이 적용되나 거기에서 ($\pm\alpha$)가 결정되지 않은 XP-재귀사는 LF에서 X⁰-이동을 하여 선행사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설명된다.

(iii) XP-재귀사는 XP-이동을 하지 않아도 선행사 결속의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 Chomsky(1989)의 최소노력의 원리(Least Effort Principle)에 따르면 이론상 필요없는 이동은 제거되어야 하므로 XP-재귀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LF여파기 : 결속이론(A)=LF에서 [-α]인 재귀사는 제거된다.

선행사지배조건=재귀사흔적은 선행사지배되어야 한다,

(10)의 결속이론체계내에서 영어, 한국어, 아이슬랜드어를 다시 분석해보자.

영어는 XP-재귀사이므로 SS에서 국부적 영역 NP, S내에서 결속되어 α -marking되면 LF에서 이동하지 않고 SS에서 [$\pm\alpha$]의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LF에서 self-이동을 한다.

- (11) a. John_i told Bill_j about himself_{i,j}.
- b. John_i told Bill_j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ould be on sale.

(11a)에서 재귀사는 최소절내의 주어, 목적어에 결속되어 SS에서 $[+\alpha]$ 이므로 LF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11b)의 재귀사는 종속절내에서 그것을 성분통어 하는 NP가 없으므로 α -marking이 적용되지 않는다. LF에서 *self*가 X^0 -이동을 하여 주절 INFL로 이동하면 주어만 선행사로 취하게 된다.

- (12) a. Ég sendi Harald_i för á sig_i.

 b. *Jón sagði Bill_i [cp að Maria elski sig_i]

 Jón sig_i—INFL [vp sagði Bill_i [cp t_i'' [ip Maria t_i'—INFL elski t_i]]. (LF)
 $[-\alpha]$ at LF

(12a)에서 아이슬란드어 *sig*가 최소절내에서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하는 것은 이 언어에서 LF에서의 재귀사이동은 임의적이므로 *sig*가 제자리에 있을 때 결속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12b)에서 최소절 바깥에서 결속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재귀사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때 주절의 목적어는 VP때문에 INFL에 부착된 *sig*를 성분통어 할 수 없으므로 최소절 바깥에서 주어지향성이 일어난다.

한편 한국어 X^0 -재귀사 자기는 LF에서 반드시 이동하므로 항상 주어지향성을 보인다.

- (13) a. 철수_i는 [cp 영수_j가 영희_k에게 자기_{i,j,*k} 성적을 보였다]고 믿는다.

- b. 철수는 [cp 영수_i가 자기_j—INFL 영희_k에게 t_j성적을 보였다고] 믿는다. (LF)

 c. 철수_i는 자기_i—INFL [cp 영수_j가 t_j—INFL 영희_k에게 t_j성적을 보였다고] 믿는다.
 $[-\alpha]$ at LF

(13a)는 종속절 주어와 주절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는 2가지 LF구조를 갖는다.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INFL로의 이동에 의해서만 선행사를 찾으므로 INFL보다 하위에 있는 목적어는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3. 선행사지배조건(Antecedent Government Condition)

일반적으로 재귀사는 주어자리에 올 수 없다. Chomsky(1986a)는 이를 공법주원리로 설명하였다.

- (14) a. John loves [np a picture of himself].
 b. *John loves [np himself's picture].

(14a, b)에서 NP를 장벽으로 본다면 공법주원리는 예문을 잘 설명한다. 그러나 Chomsky(1986b)의 장벽이론에 의하면 동사에 의해 L-mark된 NP는 장벽이 아니므로 (14b)에서 재귀사이동후 생긴 흔적은 선행사지배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따라서 (14b)의 비문법성은 현재의 선행사 지배조건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Lebeaux(1983)은 재귀사와 상호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5) a. They think [cp that [np each other's friends] are kind.

- 어휘지배
- a'. $\boxed{\text{They}_i \downarrow \text{VP}}$ $\boxed{\text{each}_i \downarrow \text{VP}}$ think that $\boxed{[t_i \text{ other}]} \downarrow \text{NP}$'s friends are kind]]. (LF)
- b . *They think that themselves' friends are kind.
- b'. $\boxed{\text{They}_i \downarrow \text{VP}}$ $\boxed{\text{themselves}_i \downarrow \text{VP}}$ think $\boxed{[\text{CP} t'_i \downarrow \text{IP} \boxed{[NP t'_i \text{ s friends}]} \downarrow \text{NP}]} \downarrow \text{NP}$ are kind]].

(15a, b)에서 상호사는 NP의 주어자리에 올 수 있으나 재귀사는 올 수 없다. 그 이유는 *each other*라는 상호사의 핵인 *other*가 LF에서 제자리에 남아 *each*의 혼적을 어휘지배하므로 항상 공법주원리를 만족하는 반면 *himself*는 LF에서 이동한 후 남는 혼적이 공법주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사지배되어야 한다. 그런데 (15b)에서 장벽 NP는 재귀사흔적의 선행사지배를 막으므로 비문이 된다.

Lebeaux(1983)가 가정한 공법주원리는 Lasnik-Saito(1984)가 제안한 것으로 어휘지배된 혼적은 선행사지배가 필요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Pica(1987)가 제시한 선행사지배 조건은 모든 선행사흔적에 적용되므로 어휘지배 여부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Lebeaux(1983)와 Pica(1987)의 입장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보기 위해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 (16) a. John thinks that a picture of himself is on sale.

- b. $\boxed{\text{John}_i \downarrow \text{NP}}$ $\boxed{\text{self}_i \text{—INFL}} \downarrow \text{NP}$ think $\boxed{[\text{CP} t'_i \downarrow \text{IP} \boxed{[NP \boxed{[NP \text{ a picture of } t_i \text{ is on sale}]} \downarrow \text{NP}]} \downarrow \text{NP}]} \downarrow \text{NP}$]. (LF)
[+α] at 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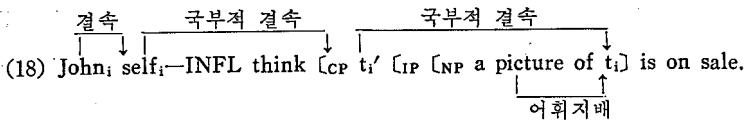
(16a)는 LF에서 (16b)의 형태를 가지며, 재귀사흔적은 어휘지배되나 선행사지배조건을 어긴다. (16)의 문장이 문법적이므로 선행사지배조건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공법주원리로 재귀사가 보는 자리를 예측하려 한 Lebeaux(1983)은 (14b)의 비문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14b)와 (16)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공법주원리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7) 어휘지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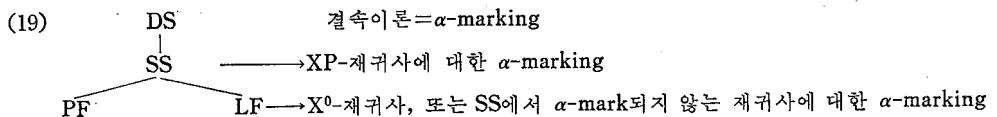
재귀사는 어휘지배되어야 한다.

(17)은 재귀사가 선행사지배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NP나 S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함을 설명해주며, 앞서 제안한 SS와 LF로 나뉘어진 결속이론체계내에서 제자리에 남아있는 XP-재귀사나 X⁰-재귀사에도 적용되므로 이론상 가장 우월하다.

그런데 재귀사가 항상 고유지배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공법주원리를 만족한다는 것이다. 또 LF에서는 Subjacency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귀사이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재귀사는 Pica(1987)나 Huang과 Tang(1988)이 주장한 것과 같은 INFL-to-INFL 이동이 아니라, 최종기착점을 향해 직접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어의 장벽효과(blocking effect)와 같이 재귀사이동이 국부적 이동의 연속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 제안한 SS-LF에서의 결속이론체계에서 선행사지배조건을 버리는 대신 어휘지배조건을 설정하고, 또 국부적 결속조건은 재귀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귀사흔적에도 적용된다고 수정하자. 재귀사흔적은 공법주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재귀사의 성질을 가지므로 국부적 결속을 요구한다.



(18)에서 재귀사는 결속이론(A)를 만족하고 재귀사 혼적은 어휘지배조건과 국부적결속 조건을 만족한다. 이 때 NP는 선행사지배에 대해서는 장벽이나 국부적 결속은 막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사지배조건을 버려도 국부적 결속조건에 의해 재귀사가 INFL-to-INFL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잠정적 이론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



LF에서의 제약

- (i) 결속이론(A): LF에서 $[-\alpha]$ 인 재귀사를 제거한다.
- (ii) 어휘지배조건
- (iii) 국부적 결속조건

4. 비성층적 언어의 특징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의 X^0 -재귀사는 아이슬랜드어와 같은 성층적 언어의 X^0 -재귀사와 다른 특징이 있다. 비성층적 언어 X^0 -의 재귀사는 주어자리에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성층적 언어의 X^0 -재귀사는 주어자리에 올 수 없다.

- (20) a. 철수_i는 자기_i가 책을 숨겼다고 고백했다.
 b. *Jón_i segir að horum líki(SUB) sig_i(nom)
 (John says that he likes self)
 c. *John_i thinks that himself_i is innocent.

(18b)의 *sig*는 동사 뒤에 있지만 주어이다. INFL의 요소는 보통 시제와 AGR로 보며 영어는 AGR을 INFL의 핵으로 보아야 하나 아이슬랜드어는 직설법 INFL이 종속절 INFL을 시제지배(Tense-govern) 하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시제를 INFL의 핵으로 보아야 한다. Johnson(1985)는 종속절주어가 어디에 있든 주격을 받은 것은 비어있는 종속절 INFL의 시제대신 AGR이 핵이 되어 주어와 INFL사이에 동일지표표시(coindexing)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X^0 -재귀사는 비어있는 INFL에 들려가야 하고 만일 INFL의 핵이 차 있을 때는 그곳이 재귀사이동의 종착지가 된다고 가정하자. (20b)에서 아이슬랜드어는 어휘적 INFL을 가지므로 종속절 주어 자리의 재귀사는 어휘지배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주격을 받은 X^0 -재귀사는 INFL-to-INFL이동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b)의 종속절 INFL은 시제는 비었지만 INFL의 핵은 주격을 주는 AGR로 차 있기 때문이다. *sig*는 주절 INFL로 갈 수 없으므로 주절 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 이는 Johnson(1985)가 똑같은 가정하에 동일지표내포금지조건(i-within-i condition)의 조작으로 (20b)를 설명하려 한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설명되며 이와 같은 INFL구조의 성질은 결속현상의 다른 일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20b)의 종속절주어자리에 만일 목적격을 받는 재귀사 *ser*가 오면 주절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으므로 종속절 시제가 INFL의 비어있는 핵일때는 *ser*의 INFL-to-INFL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잘 설명된다. (20c)에서 재귀사는 영어의 어휘적 범주인 INFL에 의해 어휘지배되지 못하여 비문이다.

그렇다면 (20a)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Cole, Hermon과 Sung(1988)은 한국어의 INFL이 영어 INFL보다 강하여 고유지배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0a)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형태론적으로나 통사적으로 근거가 없다.

Fukui-Speas(1986)은 비성층어에서는 XP를 형성하는 C(Comp), I(INFL), D(Determiner)와 같은 기능적 범주가 없으므로 최대투사범주가 없고 따라서 그것에 기초한 장벽이 생기지 않아, 주어, 목적어 불균형 현상이나 섬 제약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20a)에서 주어자리의 명사구는 DS에서 원래 동사에 직접 고유지배되는 요소이므로 비성층어에서는 주어, 목적어가 다같이 어휘지배되는 자리인 것이다. 김 양순(1988)은 이를 약간 수정하여 우리말은 -고와 같은 보문자, -었과 같은 시제를 포함한 INFL을 가지며 다만 최대투사범주가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우리가 이 가설을 받아들이면 (20a)는 어휘지배조건을 만족하여 정문이다.

Cole, Herman-Sung(1988)은 비성층어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다음 예문을 들고 있다.

- (21) a. *John_i saw [NP the man [CP who [IP t had taught himself_i]]].
 b. 철수_i는 [자기_i를 가르쳤던 IP] CP] 선생님 NP]을 만났다.

영어와 한국어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보면 (21a)의 비문법성은 공법주원리로 포착된다. 그러나 (21b)도 NP, CP의 2개의 장벽을 넘는데도 정문인 것은 공법주 원리와 상치된다. Cole, Herman-Sung(1988)은 (21b)와 같은 비성층어는 종속절의 VP가 삭제되는 VP-Reduction이라는 매우 이상한 조작을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비성층어에 관한 가설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이 (21b)를 다시 쓸 수 있다.

- (22) a. 철수는 [[자기를 가르쳤던 i] 선생님 n]을 만났다.

b. 철수_i는 자기_i-INFL [t_i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났다.
 [+α] at LF

(22b)에서 재귀사는 주절 INFL로 이동하고 LF에서 [+α]값을 가지며 재귀사 흐적은 INFL로 이동한 재귀사에 의해 국부적 결속이 된다. 따라서 종속절 주어자리의 자기는 어휘지배조건, 결속이론(A), 국부적 결속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Fukui등의 가설을 받아들여 비성층어의 구조를 달리 설정하면 무리한 조작없이도 주어-목적어 불균형 현상의 결여, 섬 제약 현상의 결여가 자동적으로 설명된다.

5. 장벽효과(Blocking Effect)

Huang-Tang(1989)은 중국어의 X⁰-재귀사 *ziji*가 한국어에서처럼 모든 절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을 지적했다.

- (23) Zhangsan_i renwei [wo_j hai-le ziji*_{i,j}]

(23)에서 중국어 *ziji*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선행사와 다른 [인칭, 수]를 가진 주절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지 않는다. 이를 장벽효과라 한다. 영어의 재귀사 *himself*나 중국어의 X⁰-재귀사 *ta-ziji*는 [3인칭 단수]로 ϕ -features가 결정되어 있으나 중국어 X⁰-재귀사 *ziji*는 ϕ -features가 유동적이다. Huang-Tang(1989)은 결속이론이 SS와 LF에서 두번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ϕ -features의 결속이 지시적 표지의 결속보다 우선한다고 전제하였다. 중국어 *ziji*는 ϕ -features와 지시적 표지가 다 없으므로 결속이론이 두 번 적용되어야 한다. 즉 SS에서 결속자에 의해 ϕ -features를 받고 LF에서 결속자에 의해 지시적 지표를 받는다. 반면 영어 *himself*는 지시적 지표만 정해지면 되므로 SS에서 결속자에 의해 지시적 지표를 받고 나면 LF에서는 더 이상 결속이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 *himself*는 국부적 결속을 하며 중국어 *ziji*는 ϕ -feature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 비국부적 결속을 한다. (23)에서 주절주어는 LF에서 *ziji*에게 지시적 지표를 주는 결속자가 될 수 있으나 ϕ -features가 다르므로 장벽효과가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Huang-Tang(1989)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24) 철수_i는 [내_j가 자기_i, *_j]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한국어의 자기는 *ziji*와는 달리 3인칭 단수인 선행사만 찾으므로 ϕ -features가 이미 내포된 재귀사이다. 영어와 같이 SS에서의 결속원리에 의해 지시적 결속자를 국부적 영역내에서 찾으나 내가 자기와 다른 ϕ -features를 가지므로 선행사로 취하지 못한다. LF에서 지시적 결속자를 찾기 위해 결속원리를 적용하면 Huang-Tang(1988)은 연속적 IP-부착을 통해 형성된 재귀사의 사슬이 모두 같은 ϕ -features를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24)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25) 철수_i는 [CP [IP 자기_i [IP 내_j가 t_i]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25)에서 재귀사의 선행사와 그 혼적사이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의 연쇄로 묶으면 (철수_i, 자기_i, 내_j, t_i)가 되어 ϕ -feature의 충돌이 일어난다. 따라서 Huang-Tang(1989)은 한국어에 장벽효과가 없는 것을 설명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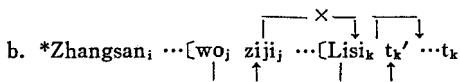
우리는 장벽효과의 설명을 위해 결속이론 전체를 재구성하는 대신에 X⁰-재귀사 중에서도 ϕ -features가 미정인 특정한 유형의 재귀사에만 적용되는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설명해보자.

(26) 일치에 관한 국부조건(Locality condition on Agreement)

인칭, 수 등의 ϕ -feature를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재귀사흔적도 재귀사이므로 국부적 결속을 요구했던 것처럼 인칭, 수가 비어있는 재귀사흔적도 원래의 재귀사와 같이 (26)을 만족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27) a. Zhangsan_i ...[wo_j ...[Lisi_k ...ziji_k, *_i]
(I)



(27a)에서 재귀사가 가장 가까운 주어와 다른 ϕ -feature를 가진 *wo*(나)를 선행사로 취한다면 그 LF형태는 (27b)가 된다. (27b)에서 재귀사와 그것의 혼적은 각각 (26)의 국부조건때문에 바로 앞의 주어의 ϕ -features를 받게 된다. 그러면 재귀사와 그것의 혼적사이에

지켜져야 할 국부결속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귀사와 그 혼적의 ϕ -features의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반대로 재귀사와 혼적의 ϕ -feature의 지표가 같다면 이번에는 (26)의 일치에 있어서의 국부조건을 어기게 된다. 결국, 중국어 *ziji*는 비국부적 결속을 하되 재귀사와 그 혼적사이에 있는 모든 명사구의 ϕ -feature가 동일할 때만 정문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26)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7a)와 같은 문장에서 주절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더라도 정문이다. 따라서, 장벽효과의 유무는 재귀사의 개별적 성질에 따라 (26)을 적용시킴으로써 예측 가능하다.

6. 지배법주(Governing Category)

종래의 결속이론은 주로 재귀사가 선행사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연구하였다. 가령, Pica(1985)는 영어 재귀사는 주어를 가진 영역, 아이슬랜드어 재귀사는 시제를 가진 영역, 불어의 특수한 동사와 관련된 재귀사는 진리가를 가진 영역을 지배법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같은 비성충어의 재귀사는 지배법주가 무한하여 문장 전체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법주가 결속이론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려면 그 안에서 재귀사를 결속하는 모든 명사구가 선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어지향성이 지배법주 안에서도 또 다시 국부적 영역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지배법주의 필요성이 크게 쇠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XP-재귀사는 SS에서 α -marking하고 X⁰-재귀사는 LF에서 α -marking 하되 LF에서 적용되는 재귀사의 INFL로의 이동의 종착지를 결속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하는 것이 이론상 잔결하다.

일반적으로 INFL안에 시제와 AGR이 있고 그중 어느 것이 INFL의 핵이냐 하는 것은 개별언어의 Parameter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INFL의 핵은 AGR이다. 한국어는 주어의 일치현상이 없으므로 AGR자리가 비어있고, 영어의 AGR은 3인칭 단수 주어와의 일치에서 입증되듯이 차 있다. LF에서 X⁰-재귀사의 X⁰-이동은 2종류가 있다. 즉 (i) INFL의 핵이 비어있으면 재귀사가 핵이 되는 대치(substitution)와 (ii) INFL의 핵이 차 있으면 그 핵에 부착되는 부착(adjunction)이 있다. 그런데 (i)의 경우에는 그 위로의 재귀사이동이 가능하나 (ii)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XP-이동에서도 그러하듯이 다음과 같은 제약때문이다.

(28) 연속적 부착금지 조건(No Successive Adjunction Constraint)

부착은 2번 이상 연달아 일어날 수 없다.

(28)은 다음 예문을 설명한다.

(29) a. 철수_i는 [영희_k가 자기_{i,j,k}를 원망하게 했다고] 믿는다.

b. John_i thinks that Bill_j says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ill get a prize.

(29b)에서 영어의 *himself*는 SS에서 α -mark되지 않아 LF에서 X⁰-이동을 하므로 LF구조상으로 (29a)의 자기의 X⁰-이동과 똑같다. 그러나 (29a)의 자기는 주절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고 (29b)의 재귀사는 그럴 수 없다. LF에서 똑같은 X⁰-재귀사로 취급되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INFL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어 등 비성충어의 INFL은 항상 핵의 자리가 비어있어 (28)의 제약을 어기지 않고 연속적 대치를 한다. (29b)에서 영어의 종속

절 INFL은 AGR로 차 있어 *self*는 한번 여기에 부착하면 (28)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한다. 한편 아이슬랜드어의 재귀사 *sig*는 가정법 INFL에는 들렸다 갈 수 있으나 시제를 가진 직설법 INFL에 한번 부착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 (30) a. Jón_i segir [cp að [ip María_j elski(s) sig_{i,j}]]
 ↓
 [↓ ↓ | ↓ | ↓ | ↓]
 b. Jón_i sig_i-INFL segir [t_{i'} [María_j t_i-INFL elski t_i]]]

(30a)에서 주절동사의 INFL은 종속절의 시제를 지배한다. 두 절의 시제가 일치한다면 종속절의 핵인 INFL의 핵이 AGR이 아니라 시제여야 한다. 종속절의 시제는 모두 비어있다가 주절시제와 같은 지표를 가지므로써 시제의 일치가 가능하다.

(30b)에서 *sig*는 비어있는 INFL에 들렸다 나올 수 있으나 시제가 차 있는 주절 INFL에는 X⁰-대치가 아닌 부착을 해야하므로 (28)의 제약에 의해 더 이상의 이동이 금지된다.

지배법주를 없애고 재귀사이동의 역할을 극대화한 이러한 시도는 또 Chomsky(1986a)가 제안한 결속이론상 적합성(BT-compatibility)을 불필요하게 한다.

- (31) *John knows [gc Mary's picture of himself]
 |
 [-α] at SS
 ↑
 (32) [gc John knows [a picture of *himself*]]
 no α-marking at SS
 John_i self_i-INFL know a picture of [NP him t_i]
 | ↑ |
 [+α] at LF

결속이론상 적합성을 채택하면 (31)의 지배법주는 NP이고 (32)의 지배법주는 절 전체이다. 대신 보편적인 국부적 영역으로 NP, S를 잡고 SS에서 재귀사의 선행사를 찾아보자. (31)에서 재귀사는 NP안에 성분통어하는 다른 명사구가 있으나 지표가 다르므로 SS에서 [-α]로 표시되고 LF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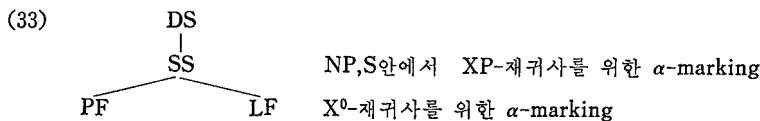
(32)에서 재귀사는 NP안에 그것을 성분통어하는 자가 없으므로 SS의 α-marking이 [+α]도 [-α]도 줄 수 없다. 따라서 α-mark되지 못한 재귀사는 LF에서 INFL로 이동하여 선행사를 찾는다. (32)에서 재귀사는 주어에 결속되어 LF에서 [+α] 표시된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에 특수한 결속이론상 적합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결속이론의 α-marking이 (31), (32)를 잘 설명해 준다.

7.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 영어, 아이슬랜드어의 재귀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i) 한국어 X⁰-재귀사 자기는 항상 주어만 선행사로 취하며 비국부적 결속을 한다.
- (ii) 영어 XP-재귀사 *himself*는 국부적 영역(NP, S)안에서는 주어지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그 밖에서는 주어지향성을 갖는다.
- (iii) 아이슬랜드어 X⁰-재귀사 *sig*는 국부적 영역 밖에서만 주어 지향성을 보이며 비국부적 결속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결속이론하에서는 위의 3가지 유형의 재귀사가 모두 설명된다.



(33)의 체계내에서 모든 재귀사와 그것의 흔적은 어휘지배조건과 국부적 결속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i)은 한국어의 재귀사이동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ii)는 영어 재귀사가 대부분 SS에서 α -mark되거나 예외적으로 α 의 값이 주어지지 않는 재귀사에 한해 LF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며 (iii)은 아이슬란드어의 재귀사는 LF이동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임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런 주장이 이론상 기여하는 점은 첫째, 결속이론 적합성을 제거하고 둘째, 지배법주를 제거하며 세째, XP-재귀사와 X⁰-재귀사의 구조와 주어지향성의 상호관계를 밝힌다는 데 있다. 그리고 비성층어의 주어-목적어 불균형 현상의 부재, 장벽효과의 유무는 이러한 결속이론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통사구조의 차이, 개별 언어에 고유한 조건의 설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aker, M. (1988) *Incorporation*, Ph. 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s.
- Cole, P., G. Herman, and L.-M. Sung (1988) "Principles and Parameters of Long Distance Reflexives," ms, University of Illinois.
- Fukui, N and M, Speas (1986) "Specifiers and Projections," ms.
- Giorgi, A. (1984) "Toward a Theory of Long Distance Anaphoras: A GB Approach," *Linguistic Review* 3.
- Huang, C.T. and J. Tang (1989) "On the Local Nature of the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NELS* 19.
- Johnson, K. (1985) "Some Notes on Subjunctive Clauses and Binding in Icelandic," in *MIT Working Papers*.
- Katada, F. (1988) "What Can Long Distance Anaphora Say about Operator Systems in Syntax?," *NELS* 19.
- Koster, J. (1985) "Reflexives in Dutch," in *Grammatical Representation*, Foris Publications.
- Lasnik, H. and M,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 15.
- Lebeaux, D. (1983) "A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Reciprocals and Reflexives," *LI* 14.
- Pica, P. (1985) "Subject, Tense and Truth: Towards a Modular Approach to Binding," in *Grammatical Representation*, Foris.

- Pica, P. (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NELS* 15.
- Sells, P. (1987) "Aspects of Logophoricity," *LI* 18.
- 김양순 (1988) *Licensing Principles and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양동희 (1989) "On Anaphor Movement," *NELS* 19.